

후지와라궁터(藤原宮跡)

후지와라궁터는 가시하라시 다카도노초(高殿町)·다이고초(醍醐町) 등에 위치하는 도성유적으로 『일본서기』에 따르면 후지와라궁은 지토(持統)8년(694)에 아스카(飛鳥)궁에서 천도하여 와도(和銅)3년(710) 헤이조(平城)천도까지 이용되었다. 후지와라쿄는 중국의 도성제를 따라한 일본 최초의 수도이고 다이호(大宝701)원년에는 다이호 율령이 제정·시행된 일본고대사에서 중요한 궁터이다.

쇼와(昭和) 9년(1934) 12월부터 쇼와18년(1943) 8월까지 일본고문화연구소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오미야(大宮)토단을 대극전터로 하는 조도인(朝堂院)의 위치와 규모가 거의 확정되었다. 쇼와27년(1952)3월에 국가의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궁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확정인 상황에서 국도165호선의 우회도로가 후지와라궁의 추정 범위 안을 통과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쇼와41년(1966) 12월부터 44년(1969) 3월까지 나라현교육위원회가 도로예정지를 중심으로 궁 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후지와라궁터의 발굴조사에서는 궁 영역의 동·서·북을 구획하는 굴립주열(SC175·SC258·SC140)이나 외호(SD170·SD145) 등이 검출되어 대극전 합문을 중심으로 하는 한변이 약 1km인 방형상의 궁역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궁역의 확정으로 후지와라쿄의 경역(京城)이 시모쓰미치(下ツ道)·나카쓰미치(中ツ道)·요코오지(横大路)·아베야마다미치(阿倍山田道)로 둘러싸인 형태로 설정되었다고 추정된다(기시(岸)설 후지와라쿄). 아스카에서 후지와라를 지나 헤이조에 이르는 7~8세기 궁도(宮都)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학술적으로 큰 성과이다.

후지와라궁의 발굴조사에서는 목간의 출토(총수 약2100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 최초의 목간 출토는 쇼와36년(1961) 헤이조궁터에서인데 후지와라궁 출토 목간은 헤이조궁보다 한 단계 오래된 것으로 다이호료(大宝令) 실시 전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하다.

그 후에 후지와라궁터를 중심으로 한 경역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시설 후지와라쿄를 뒷받침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조방(条坊)도로의 연장선상에 상정되었던 경역 외에도 경내와 같은 규격의 도로가 연이어 발견되어 실제 후지와라쿄는 기시설보다도 더 넓은 범위였던 것이 확실해졌다. 가시하라시(橿原市) 쓰치하시(土橋)유적에서 경역의 서쪽 끝부분이, 사쿠라이시(桜井市) 가미노쇼(上之庄)유적에서 경역의 동쪽 끝부분이 검출되어 현재 후지와라쿄는 궁을 중심으로 하는 10조10방의 정방형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